

프로폴리스 학술포럼 10월 25-26일 대전 개최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프로폴리스(Propolis) 국제 학술포럼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국내 처음으로 개최된다.

바이오프로폴리스연구회는 10월 25-26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1회 세계 프로폴리스 사이언스 포럼(WPSF)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월16일 발표했다.

포럼에는 한국과 일본, 독일, 우크라이나 등 세계 8개국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가해 양봉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프로폴리스의 효능, 프로폴리스의 활용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 프로폴리스 관련제품 전시와 관람객들을 위한 봉침 시술 등도 시행된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여러 식물에서 뽑아 낸 성분엔 침과 효소 등을 섞어서 만든 물질로, 병원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기능이 높고 항염·항산화·면역증강 등의 효과가 있어 천연 페니실린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은 물론 가축용 천연항생제에서 양식어류의 사료첨가제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포럼 참여 희망자 및 단체는 세계 프로폴리스 사이언스 포럼 사무국(02-529-488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학저널 2007/10/17>